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선언”

도, 환경·사회 친화적  
올림픽 유치 대장정 나서  
K-컬처 융합 행사로 기획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시의 유치 발표에 이어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기자들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과 사회 친화적인 미래형 올림픽을 전북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거석 교육감, 문승우 도의회 의장,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김희수 도의회 부의장, 최형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박정규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김동문·유인탁·임미경·정소영 등 4명의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와 조장희·김병이·정영택·이영국·최병선 등 5명의 전북체육회 부회장과 임원 등 다수가 참석하여 전북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올림픽 추진 의지에 힘을 보탰다.

7일 오후 2시 40분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사는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지구촌 대륙체인 제36회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며, “전북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르겠다고 하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이라는 비전 아래, 천년 고도 전북의 문화유산과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올림픽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전북이 세계속에 우뚝 서서 한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라는 올림픽 슬로건을 구현해, 전 세계가 화합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미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사는 그간 “전북자치도는 그간 성실하게 도전을 준비해 왔으며, 첫째,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3S, 4W’라는 핵심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3S에는 ‘효율성, 지속가능성, 화합’의 가치를 담았으며,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적 대회 운영, 친환경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확보,



7일 전북특별자치도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문승우 도의회 의장,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계 인사들이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다양성 존중과 포용으로 상생과 화합의 올림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W에는 친환경 미래도시 인프라, K-컬처의 원류 확산,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사용자 경험 혁신, 협력과 연대 중심의 거버넌스의 가치를 담았다.”고 하며, “전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형태의 올림픽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둘째로는, 경기장과 대회 인프라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하며, “전주, 완주,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장은 친환경 소재와 저탄소·저비용 건축 방식으로 설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경기장 22곳을 적극 활용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 하고, 대회 개최 과금 효과를 고르게 분산시켜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특차 올림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 주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증축해 사용하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인 ‘전북특별자치도 이지패스’를 구축해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센터 등을 잇는 최적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 또한 상생과 화합의 올림픽을 추구하는 만큼, 타 시도와의 대화 협력 창구도 활짝 열어주겠다.”며, 타

시도와의 연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우리 전북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문화올림픽을 준비하겠다.”며, “전 세계에 전북의 맛과 멋을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관소리, 농악 등 전통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옥, 서예, 비빔밥 등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K-컬처를 융합해 세계인이 반할 만한 문화행사를 함께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만들겠다.”며, “올림픽 개최 소요 예산은 약 10조2,905억원으로 계획했으며, 도쿄 올림픽과 파리 올림픽 IOC 평가위원회 보고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예산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 준비를 위한 직간접 투자는 5조3,840억원, 프레올림픽, 올림픽, 패럴림픽을 포함한 대회 운영비는 4조 9,065억원”이라고 하며, IOC의 권고안에 따라 기존 시설 재활용과 임시 시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 올림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은 정부 지원, 민간 투자, IOC 지원금 및 스폰서십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며, “올림픽 개최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약 42조원이고, 취업유발 효과는 47만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림픽 개최로 관광객 증가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는 물론, 전북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관광객 유입은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용 창출과 더불어 전북 경제 구조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6회 2036년 하계 올림픽은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열리게 된다.

또한, 2036 하계 올림픽 개최 선정과 관련해 오는 12일까지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2025년 1월에 국제위원회를 거쳐 2025년 2월 대의원총회를 통해 국내 개최 후보 도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문화체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대한체육회의 심의 이후 정부 차원의 심의를 갖게 된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김지사의 전북발전을 위한 끝없는 도전에 격려를 보내면서도 인프라 확충 등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남은 12년 동안 착실히 개최를 위해 준비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나”며,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때 보다 현재의 전북의 여건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전국 최초 중앙·지방 공직 채용 설명회 ‘호응’

‘2025 유관기관 합동 피어나 공직채용설명회’ 개최  
28개 중앙·지방기관 참여... 기관별 상담 부스 등 운영  
중학생부터 중년까지 참가자 북적... 공직 관심 뜨거워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수한 인재들의 공직 대응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앙·지방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직채용 설명회를 열었다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2025 유관기관 합동 피어나 공직채용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문한 많은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며, 최근 합격자들로 구성된 ‘공직선배 1:1 합격 멘토링’을 통해 공직선배의 공부비법을 전수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7일 오후 1시 도청 공연장과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도내 우수인재의 공직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공직채용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 유관기관 합동 피어나 공직채용 설명회’를 개최, 성황을 이뤘다.

인사혁신처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소방청 등 중앙 행정기관 9개 기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16개 기관,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공직채용 설명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공직생활 안내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변화하고 있는 공직상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곁들여졌다.

이어진 본격적인 채용설명회는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각 기관별 채용제도 설명을 통해 2025년도 채용계획과 함께 달라지는 제도 안내, 면접시험과 관련한 주요 포인트 등 참가자들이 공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마련된 ‘기관별 상담부스’ 운영을 통해 부스를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모의면접’ 체험에서는 면접위원의 피드백을 통해 수험생 본인의 면접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수험생들의 인기가 높았다. 이 밖에도 수험생들의 시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 부스(캐리커처, 취업 타로, 퍼스널 컬러 진단, XR체험)에 참여한 많은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수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충전의 시간을 갖게 만들어졌다.

합격기원 벽보는 공직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열망과 합격기원 포토존에서 찍은 미래의 공무원증에 들어가 있는 본인의 사진을 보면서 공직에 있을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수험생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행사장을 찾은 어린 학생부터 중년의 수험생을 직접 보니 내가 시험을 준비했던 힘든 시절이 생각나 조급이라도 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도내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등용돼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파수꾼이 돼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만호 기자

2024 진안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진안 별별페스타 2차

# 별별 여행자 식당 with 맛자랑 경연대회

2024. 11. 16(토) 11:00~19:30

진안 마이산 북부 주무대

\*날이 추우니 따뜻한 옷과 담요 등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문의 : 진안군 관광과 063)430-2503  
진안군 관광협의회 063)433-7336



### 1호차(25인승)

승차	마이산 북부 행사장	마이산 남부 주차장
하차	마이산 남부 주차장	마이산 북부 행사장
운행 시간	13:00, 15:00, 17:00, 19:30	12:30, 14:00, 16:00, 18:00
13:00~19:30		

### 2호차(25인승)

승차	마이산 북부 행사장	김치보쌈축제장 [진안문화체육관광부]
하차	김치보쌈축제장 [진안문화체육관광부]	마이산 북부 행사장
운행 시간	13:00, 13:40, 14:20, 15:00, 15:40	13:20, 14:00, 14:40, 15:20, 16:00
13:00~16:30		

